

구분해주고 있었지. 항구 입구 쪽에서는 한 줄기 빛과 한 덩어리의 그림자가 보였는데, 그것은 비르지니가 유람에 갈 때 타게 될 배의 현등과 신체였어. 배는 돛을 펼칠 준비를 마치고, 돛을 내린 채 적막이 걷히기를 기다리고 있었지. 이 광경을 보고 비르지니는 괴로워했고, 자기가 우는 것을 풀이 보지 못하도록 고개를 돌렸다네.

라 투르 부인과 마르그리트, 그리고 나까지, 우리는 거기서 몇 걸음 떨어진 바나나나무 아래 앉아 있었어. 고요한 밤중이었기에 우리에게는 두 사람의 대화가 또렷이 들렸고, 나는 그걸 잊지 않고 있다네.

풀이 비르지니에게 말했어.

“마드무아젤, 사흘 뒤면 떠나신다고 하더군요. 위험천만한 바다에 몸을 맡기는 것이 두렵지 않으신가 봅시다

.....

. 그렇게나 무서워하던 바다에 말이예요!”

비르지니가 대답했네.

“내 친척들의 뜻에 따라야 해, 내 의무를 다해야만 해.”

풀이 말을 이었어.

“저 멀리 본 적도 없는 친척 때문에 우리를 떠나는 거겠지!”

“아니!”

비르지니가 말했네.

“나는 평생 여기 있고 싶어. 물론 우리 어머니는 그걸